

# 4-3-2

# 명태살리기 본격 추진

## □ 관련공약

- 공 약 명(4-3-2) : 명태살리기 본격 추진(4-3-2)
- 공약내용 : 명태 인공종자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대량생산·방류

## □ 소통실적

- 일 시 : 2017. 1. 1. ~ 12. 31.
- 내 용 : 명태 인공종자생산 및 방류 관련 다수 언론매체 보도

## □ 실적자료

	<p><b>중앙일보</b> 2017년 04월 11일 (화) 종합 02면</p> <p><b>자연산 엄마와 양식 아빠, 명태 집안 새 족보를 쓰다</b></p> 
<p>G1 DMZ스토리 다큐방송 / 1.28</p>	<p>중앙일보 2면 / 4.11</p>
<p><b>완전양식 인공 2세대 어린명태 15만마리 방류</b></p> <p>명태 완전양식 성공에 이은 인공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가 30일 고성군 공천진 앞바다에 방류된다. 해양수산부와 도 해양수산자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'명태살리기 프로젝트'를 추진해 지난 2015년 자연채란으로 3만 마리를 생산, 그 해 12월 고성 저도어장에 1만 5000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인공 1세대 5000마리의 어미를 활용해 인공 2세대 생산에 성공했다.</p> <p>해양수산자원센터는 인공 2세대 총 100만 마리를 관리, 올해 3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이며, 이 가운데 우량 개체 15만 마리(4~8회)를 선별해 이날 오후 2시 고성군 공천진 연안배다육장 조성구역에 방류한다. 어번에 어린명태가 방류될 공천진항 해역은 자연임년 지형에 500여기의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어 어린명태들이 적응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했다. 나머지 15만 마리는 오는 11~12월 총 15㎞ 이상으로 키워 2차 방류할 예정이다.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지난 2015년 방류한 개체 중 2마리가 속초에서 어획되고, 지난해 2월에는 영양에서 어획된 1마리가 표지방류한 개체와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인공 배양 후 바다에 방류한 명태가 자연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. 남전천</p>	<p><b>'국민생선' 명태 명맥 되살린다...동해 대규모 방류</b></p> <p>이대원 강원도민일보 기자 특파원 / 동해부도 2017. 12. 14. 09:20</p> 
<p>명태 방류(강원도민일보 외 다수매체 방송) / 5.30</p>	<p>명태 방류 (MBC 외 다수매체 방송) / 12.15</p>